다양하고 질좋은 소비품들

평양시인민소비품전시회장을 찾아서

지난 12일까지 공화국의 평양제1백화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평양시인민소비품전시회가 진행되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류원신발공장, 평양화장품공장, 평양양말공장 등 경공업공장들과 자기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쓰기에 편리한 각종 생활용품들을 만들어내고있는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단위들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들이 참가하였다.

신발, 지은옷, 화장품, 이불류들과 특허제품들, 건강식품을 비롯한 1만 2 300여종에 38만 9 000여점의 인민소비품들이 출품된 전시회장은 참관자들로 붐비였다.

우리와 만난 평양시인민위원회의 한 일군은 보기에도 좋고 사용하는데도 편리한 질좋은 소비품들이 지난 전시회보다 훨씬 많이 출품되였다고 하면서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킬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받들고 평양시에서 인민소비품의 질을 더욱 개선하며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이려는데 이번 전시회의 목적이 있다고 말하였다.

늘어난 품종수와 제품의 질도 그러하지만 출품된 제품들이 생산단위들에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만든것으로 하여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출품한 비단제품들, 선교편직공장에서 생산한 남녀 T샤쯔들과 갖가지 내의류들, 평양양말공장에서 내놓은 《철쭉》상표를 단 남녀양말들이 참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런가 하면 평양밀가루가공공장과 평양강냉이가공공장에서 출품한 맛좋고 영양가높은 밀가루와 강냉이가공제품들도 호평을 받았다. 바삭바삭하면서도 슬슬 녹아내리는 강냉이단튀기와 구수하면서도 맛좋은 효모빵, 어린이과자, 즉석국수는 누구나 저마다 찾는 제품들이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평천구역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소랭이, 접속구, 장통을 비롯한 수지제품들과 생활필수품들 그리고 모란봉구역의 가내작업반들에서 만든 맵시있는 각종 초물제품들도 사람들의 눈길을 모았다.

비록 번쩍거리지는 않아도 자기것에 대한 긍지를 더해주는 제품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제힘이 얼마나 좋은가를 페부로 느끼였다.

이번 전시회는 소비품생산자들이 질제고와 원가저하, 새 제품개발 및 원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 등에서 이룩한 서로의 성과와 경험들을 공유하고 일반화하면서 인민들이 즐겨 찾는 명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힘있게 추동하는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림광훈

속담과 뜻

❖ 떡부스레기 모아 빚은건 떡이 아닌가.

재질이 같은 물건인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웅근것이건, 그 부스레기로 만든것이건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

❖ 푸른 련잎과 흰 련꽃이 빚은 다르나 뿌리는 한 뿌리다.

현상은 이러저러하게 다르나 그 본질에 있어서 꼭같은 것을 두고 비겨 이르는 말.

❖ 검정개나 누렁개나 개는 개다.

털이 검은 검정개도 개고 털이 누런 누렁개도 개라는 뜻으로서 겉보기는 다르나 본질은 같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천연기념물

백두산들쭉나무

백두산들쭉나무는 량강도 삼지연시 신무성지구에서 백두산으로 올라가는 도로주변에 자연적으로 퍼져있다.

백두산들쭉나무가 자라고있는 주변에는 이깔나무, 자작나무, 구름나무, 황산참꽃 등 다양한 식물이 있다.

이 지대의 토양은 부석층우에 생긴 산림밤색토양이고 기계적조성은 모래메흙이며 부식함량과 누기는 적당한 편이다.

백두산들쭉나무의 평균높이는 70~80cm이고 제일 큰 나무의 높이는 1m정도이다.

열매의 평균크기는 1.2cm이며 알당무게는 최고 2g정도이다.

백두산특산물로 알려진 백두산들쭉나무는 자연무리특성과 조성을 연구하는데서 중요한 학술적의의를 가질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의의가 있는 들쭉나무의 유일한 천연기념물이다.

본사기자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교육으로 만들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무한한 헌신으로 받들어가는 교육자들속에는 사리원시 운하소학교 교원 리명순도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교단에 선 첫날부터 리명순은 20여년을 하루와 같이 후대교육사업에 전심전력하였다.

나어린 학생들의 년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인식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교수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그가 지새운 탐구의 낮과 밤은 무수하다.

경험이 풍부한 교원들을 찾아가 배우고 새로운 참고도서들을 탐독하면서 교수수법들을 터득하였으며 수십건의 소학교자연과목의 복습문제들을 실용화, 종합화하였고 학생들의 인식능력과 창조적응용능력을 제고할수 있는 100여건의 다매체편집물들을 만들어 교수교양에 리용하였다.

그는 또한 학생들이 실제조작과 토론을 통하여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3차원기술을 비롯한 현대교육기술을 적용하여 교수내용을 원리적으로 인식시키는 우수한 교수방법도 내놓았는데 그 방법은 각지의 소학교들에 널리 보급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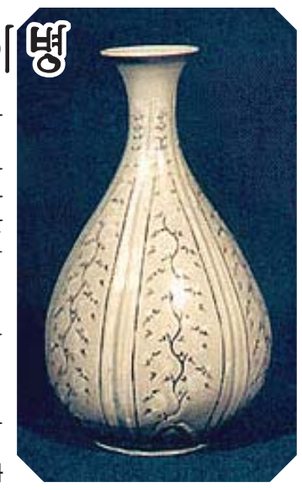
학교적인 교수방법발표회에 내놓은 새롭고 독특한 그의 교수방법은 해마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많은 제자들이 중앙과 도의 수재양성기지로 선발되였다.

10월8일모범교수자, 2021년 10대최우수교원의 영예를 지닌 그는 오늘도 후대들을 훌륭히 키우는 사업에서 교육자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력사유물

청자국화무늬박이병



국화를 무늬박이한 12세기의 푸른자기병이다.

높이 37cm, 아구리직경 7.4cm이다.

고려도자공예발전에서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비색무늬박이제품의 하나이다.

청자국화무늬박이병은 배부른 몸체에 세로낸 6줄의 골주름과 날씬한 곡선을 이룬 목 그리고 나팔주둥이 등이 잘 조화되여있다.

조선의 맑은 하늘을 형상한듯한 연한 록색기가 도는 우아한 바탕색은 검은색과 흰색으로 섬세하게 무늬박이 장식한 국화무늬, 밑부분 가장자리에 규칙적으로 정연하게 돋친 련꽃무늬 등과 잘 어울려 병의 예술적품위를 한층 높여준다.

청자국화무늬박이병은 형태의 곡선미와 맑고 푸른 바탕, 아름답고 정교한 무늬장식이 유기적으로 통일되여 고려자기의 우수성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여름철피로증과 칼리움보충

여름철의 피로는 대체로 기온이 지나치게 높아 몸에서 다량의 땀이 나가는것으로 하여 초래된다.

땀을 많이 흘릴 때 인체는 다량의 나트리움과 칼리움을 잃게 된다.

이때 칼리움을 제때에 보충하지 않으면 피로와 무력증이 나타나게 된다.

칼리움은 인체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성분으로서 근육과 신경의 민감성을 유지, 강화하고 심근의 정상적인 운동기능과 콩팥웃선의 정상기능유지에도 도움을 주며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

칼리움이 부족되면 인체의 물질대사가 혼란되고 심장혈관기능이 장애를 받으며 인체의 저항력도 떨어져 쉽게 더위를 먹는다.

그러므로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면 수분과 함께 나트리움보충에 관심을 돌리는 동시에 칼리움섭취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칼리움이 풍부히 들어있는 음식물로는 수박, 참외, 복숭아, 가지, 시금치, 유채, 미나리, 도마도, 오이, 김, 다시마, 감자, 콩, 버섯 등을 들수 있다.

특히 김, 다시마에 칼리움이 많이 들어있다.

이밖에 물고기, 새우 등에도 칼리움이 풍부히 들어있다.

본사기자

민족요리

돼지등심사과구이

돼지등심사과구이는 단백질과 당분함량이 높고 유기산과 광물질, 비타민C가 풍부하여 원기와 피로를 회복하는데 좋다.

료리감으로는 돼지고기(등심) 400g일 때 사과 100g, 다진 양파 50g, 풋고추편 50g, 간장 10g, 기름 20g, 마늘편 15g, 소금 2g, 후추가루 1g을 준비한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돼지고기는 깨끗이 손질하여 다진 양파, 기름, 사탕가루, 소금, 후추가루를 두고 재운 다음 끈으로 묶어 모양을 잡는다. 사과는 귤쪽모양으로 썬다.

2. 구이판에 돼지고기를 놓고 그우에 간장을 바른 다음 마늘편, 사과쪽, 풋고추편 등을 함께 놓고 로에서 구워낸다.

본사기자

웃음

머리가 흔들리는 병때문에

옛날에 신수를 잘 본다는 한 점쟁이가 있었다.

그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신수를 안다고 호언장담하였다.

어느날 수심에 잠긴 한 로인이 그를 찾아와 신수를 봐달라고 하였다.

점쟁이는 로인의 관상을 보고나서 말하였다.

《로인님은 말못할 걱정거리를 안고왔군요.》

그러자 로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럼 자식들이 불효하겠구만요.》

이번에도 로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럼 늘그막에 마누라를 잃었겠군요.》

로인은 역시 고개를 가로저었다.

다 주어섬겼으나 매번 머리를 가로저으니 점쟁이는 하는수없이 그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로인님은 뭣때문에 점을 치려고 하시우?》

《아직도 맞추지 못하면서 무슨 점을 친다고 그래? 나에게는 이렇게 머리가 좌우로 흔들리는 병이 있는데 언제면 나을가 하는것을 알고싶어서 왔소.》

사 화

마지막 발명품 (5)

글 리성덕, 그림 채대성

영실은 그날 종일 우울하게 지내였다. 마음이 까닭모르게 울적하고 산란하였다.

궁담옆에 활짝 핀 봄꽃의 향기도 마음을 괴롭히고 산란하게 하는것같았다.

그날 밤은 달이 밝았다. 영실은 퇴마루에 나앉아 달빛을 하염없이 바라보고있었다. 궁담밑의 복숭아꽃은 달빛을 받아 류달리 하얗게 보이였다.

궁담쪽으로 시선을 돌린 영실은 불현듯 만발한 복숭아꽃들사이로 하얀 소복차림을 하고 환하게 웃는 중년녀인의 모습이 우렷이 떠올랐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의 모습이였다.

관청기생으로 한뉘 고생을 하다가 마흔도 넘기지 못한채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 그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어머니가 별스럽게 소복을 입고있었던것이 아버지의 사망때문이였음을 철이 들어서야 깨달았을 정도였다.

(영실아, 불쌍한 내 아들아.)

꿈결에도 잊을수 없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려오는것같았다.

(너는 이 어머니가 천한 몸이였던탓에 훌륭한 재능을 타고났어도 빛을 보지 못하는구나. 아, 원한의 세상이요, 원한의 인생이로다. 네가 큰뜻을 품고 모진 마음을 먹었으니 실로 장하다만 너를 기다려 시들어가는 저 옥섬이는 어찌할터이냐. …)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난 영실은 궁담밑으로 허둥지둥 달려가서 어머니의 모습이 비꼈던 그 복숭아나무를 부둥켜안고 몸부림쳤다.

(아, 어머니, 불쌍한 어머니!)

그의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걱정마세요. 이젠 이 영실이도 관노가 아니예요. 힘껏 일하여 큰 공을 세우겠어요. 하지만 제발 옥섬의 일은 잊으세요. 저는 잊으려 합니다. 아니 잊을래야 잊을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런 운명인 모양입니다.)

몸부림치는 그의 잔등에 하얀 복숭아꽃잎이 흩날려 떨어졌다. 진정 아름답고 향기그윽해도 서리처럼 차겁게 느껴지는 꽃잎이였다. 영실의 눈앞에는 지나간 나날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동래의 진산인 소산의 한 지맥이 흘러내려 이루어진 나지막한 등성이… 이곳에서 영실의 소꿉시절이 흘러갔다. 구속을 모르고 즐겁게 뛰여놀던 그 시절은 실로 잠간이였다. 그는 너무도 일찍 철이 들었다.

《홀어미자식》이라는 말의 모욕적인 의미를 뼈저리게 느낄 때쯤 되자 노비신분의 무서운 올가미속에 든 제 처지도 깨달을수 있었다.

열여섯살 잡히던 해에는 친한 동무들도 그에게서 멀어지는듯했다.

호적에 오른 그들은 모두 호패를 차게 되였으나 호적에도 없는 영실에게는 호패가 있을리 없었다. 그와 동무들과의 사이에는 어느새 엄연한 간격이 생겼다. 그는 관청노비안(관청노비대장)에만 천한 이름 석자가 씌여져있는 자기 처지의 불행함을 통절하게 느끼였다.

영실은 갑자기 이 세상에 저 혼자 외롭게 남은것같았다. 그는 동무들을 만나려 하지 않았고 동무들도 역시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한 처녀만은 전보다 더 그를 정답게 대해주고 가장 살틀한 심정으로 위해주었다.

영실은 처녀의 그 비단결같은 마음에 가슴이 후더워져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적도 있었다.

바다가 가난한 어부의 집에서 나서자란 처녀는 남달리 건강하고 억세면서도 마음씨는 부드러웠다. 웃을 일이 있으면 허리가 꺾어지게 웃었고 울 일이 있으면 가슴이 찢어질듯이 울었다. 정녕 불덩이같이 뜨겁고 다감한 처녀였다.

처녀는 제가 영실을 남달리 사모하며 따르게 된것이 언제부터인지는 딱히 알지 못했다.

어릴적 바다가 모래불에서 뛰놀 때부터 그들은 다정한 사이였다.

철이 들었을적에는 어느덧 남모르는 사랑의 봄싹이 두 청춘의 가슴속에서 움터났다.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사색을 즐기는 영실과 보다 활동적이고 열렬한 옥섬의 사랑은 세월의 흐름속에 깊어갔다.

하건만 그 뜨거운 사랑의 행복은 너무도 짧았다. 영실은 임금의 부름을 받고 집을 떠나게 되였을 때 불행속에 자리잡은 사랑의 고통을 새로이 깨달았다.

기약도 없는 리별의 순간에 그는 불가사의한 운명의 힘을 느꼈으며 사랑의 자유조차 없는 종의 쓰디쓴 설음을 맛보았다.

영실은 한양대궐로 온 후에도 밤마다 천리 먼곳에서 울려오는 처녀의 구슬픈 호느낌소리를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관노의 신분으로 장가를 들어 불쌍한 종자식의 죄많은 아버지가 될바에는 과학기술에 한생을 바쳐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는것이 더 떳떳하리라고 생각하였다.

피눈물을 삼키고 몸부림을 쳐가며 옥섬의 그 애절한 호느낌소리를 잊으려고 했다. 그렇게 어언 10년이 흘러갔다.

그런데 오늘 우연히 임금이 그의 이 아픈 마음의 상처를 건드려놓은것이였다. 그는 고달픈 악몽에 허덕이면서도 임금을 원망하였다.

《아, 너무하오이다.》 하고 그는 피타게 부르짖었다.

《소인은 임금님을 위해 사랑도 가정도 다 버리고 한생을 바치기로 각오하고있사옵니다. 헌데 그토록 모질게 마음의 상처를 건드려놓을 까닭은 무엇이옵니까. 소인은 이미 정교한 기계를 만드는것만 락으로 삼을뿐 다른 락은 바라지도 아니하는바온데 그 이상 무엇을 더 요구하옵니까.》

영실은 이상하게 울리는 제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을 깨였다.

누운채로 고개를 돌려 동창을 바라보니 벌써 해가 높이 떠오른듯 방안에 훌러드는 한줄기 눈부신 빛이 보이였다.

잠간 눈을 비빈 그는 몸을 일으켜 두팔로 무릎을 그러안고 앉았다.

그러자 불시에 한없는 고독감이 엄습하였다.

어인 일인지 문득 옥섬이가 자기보다 더 가슴쓰린 원망을 안고 살고있으리라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10년세월이 흘렀으니 옥섬이도 이젠 30나이를 넘겼을것이다.

《제발 더는 이 못난 놈을 기다리지 마오. 옥섬이가 내내 원망을 품고 기다린다면 이 영실의 죄는 씻을 길이 없소. 나는 임금에게 바쳐진 몸이니 더는 찾지 마오. 기다리지도 찾지도 마오.》

영실은 머리를 세차게 흔들며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잠을 설친 그는 부석부석해진 눈으로 천정 한끝에 드리운 거미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몹시 흐리고 무거웠다.

주 소 : 평 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 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 집 위 원 회